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만남과 인생의 성공

인생이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말하고 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만남의 대상은 물리적인 자연환경과 만남 인적 인 사람과의 만남 지식정보와의 만남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만남은 기능적으로는 다르더라도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어떤 만남이나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있다.

교육을 인간유기체가 환경과의 교호작용을 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람직한 환경이란 만남의 환경을 말하고 있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의 만남은 부모 형제이고 가정환경이다. 이 만남의 환경은 어린이의 성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 만남의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고정관념이 형성되고 있으며 고착된 고정관념을 나침반으로 삼아 인생 항로를 운행해 가는 것이다.

부모를 바꿀 수 없으나, 가정을 떠난 인적 환경은 선택사항이다. 어떤 배우자를 택해 결혼하느냐, 어떤 학교에 가느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인생 나침반이 형성되고 있다. 인간은 성공하고 싶어 하고 있으며 그것이 인간의 욕구다. 성공이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연환

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세운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성공하려면 바람직한 만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만남이 없는 인간은 산송장이다. 만남이란 성공을 향해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 성공을 위해 자기의 인생 성공 목표를 향해 바람직한 만남을 선택해야 한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동창들의 만남, 같은 고향 사람들의 만남,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만남 직장에서의 만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만남 등 수많은 만남이 있는데 만남에는 부정적인 만남과 긍정적인 만남이 있다.

부정적 만남이란 실패한 인적 물적 환경적 만남이다. 이러한 만남에 빠져 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하며 성공적인 만남이란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긍정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만남이다. 과거는 지나갔는데 과거의 환경에 젖어 있다면 빠져나와야 하며 과거의 고정관념은 과거와 함께 역사 속에 묻어 두고 변화되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즐거운 만남을 이루면서 성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한다. 과거의 부정적 사고인 고정관념에 발목 잡혀 있다면 성공의 계단에 올라설 수 없다.

날로 새로워지는 국제화 시대에 세계는 한집안처럼 변했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지식 정보의 변

화를 습득하면서 새로운 생각 젊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젊은이가 과거의 만남에 벗어나지 못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성공으로 가는 길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만남에서 부모 형제 같은 자연적 만남은 바꿀 수 없지만, 인위적인 만남은 선택 사항이다, 살다 보면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긍정적 사고에서 나온 선택과 부정적 사고 선택에서 나온 선택은 만남을 성공이나, 실패나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따라서 내가 성공하려면 긍정적 환경과의 만남을 택하고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과 만남을 택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지식 정보를 접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남은 직접 만남과 간접 만남이 있다. 직접 만남을 약속하는 만남이라면 간접 만남은 통신수단에 의한 만남과 독서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만남이 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느님께서는 평등하게 시간을 주셨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떤 만남이나에 따라 결실은 달라지고 있다.

결과의 평준화를 하느님께서 주지 않고 성공자와 실패자 부자와 가난뱅이로 구분하셨다, 만남의 선택이 바로 나의 성공 나침반이다. 긍정적 생각과 만남으로 성공자로서 인생을 풍요롭게 살았으면 한다.

독자기고

상인들이 동참하는 화재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박상래
담양소방서장

‘님아 그 시장을 가오’ 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보았다. 방송인 겸 사업가 백종원씨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바쁜 도시에서 떠나 여유롭고 정겨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주변 경관을 관광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공교롭게도 우리 담양소방서 관내의 전통시장 두 곳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소개돼 기분 좋게 시청을 했다.

전통시장은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전국에는 1천개가 넘는 시장이 있고 그곳에는 총 20만개에 육박하는 점포가 들어서있다.

장날이 되면 불특정다수가 방문하게 되는데 대부분 시장 구조가 좁고 밀집돼 있어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차의 진입은 물론 사람들의 대피가 어려워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요즘 들어 전통시장 리모델링 등이 이루어져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다수의 건물이 노후화 되고 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피해 또한 야기된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은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자율적인 안전점검이다. 소방관들이 아무리 당부하고 계도하더라도 한계가 있기에 시장 상인들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내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전기·가스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노후화된 전기콘센트를 교체하고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용은 금해야 한다.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는 화재발생의 대표적인 원인이며 상인들 스스로가 조금만 노력하면 화재 발생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또한 유사시 시장 내에 설치된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돼 있어야 할 것이며 소방통로 상 진입 방해요인을 없애야 한다.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불법주정차 또한 일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상인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평소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 안전하고 정다운 우리의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이기영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부사장	기백관				
취재본부장	서용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린알로에

GREENFIBROO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